



지역 소식

지역 목표 3. 안식일의 예배 경험을 단순화하고 드높인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즐거운 날 -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은 진정으로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들고 있습니까?”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셀 엠 벨슨 장로가 201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했던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라는 말씀을 언급하며 말씀을 열었다.

“이 말씀에서 벨슨 장로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회장단 역시 이에 공감합니다. 지역 비전에는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이런 기쁨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벨슨 장로님은 말씀에서 ‘거룩하게’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는’ 것을 연결 지었습니다. 이는 이해하기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니까? 어릴 때 저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행동과 태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을 경전에서 배웠습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은 더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어떤 활동이 안식일에

합당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단순히 저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드리고 싶은가?” 그 질문은 안식일과 관련한 저의 선택들을 매우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야마시타 장로는 이 표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표징이 태도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거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방법의 적합함보다는 우리 마음, 또는 우리 태도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표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식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단순한 안식일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들기 위해 안식일의 예배 경험을 단순화하고 드높이는 것에 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만드는 것이 안식일을 단순화하고 드높이는 가장 고상한 방법입니다. 연사뿐만 아니라, 지휘자와 반주자, 사회자도 준비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단순함이 요구됩니다. 바꿔 말하면, 영을 불러오려면 신속히 앉아서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에 경청할 때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는 아주 단순한 원리이며 여러분이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단순화하기 위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 반의 교사들도 안식일을 단순화하고 드높이는 노력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사들은 자신이 이 일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주의 방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안식일을 단순화하고 드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과반에서 교사들이 구주의 방법으로 가르칠 때, 학생이 중심이 되고, 안식일은 학생을 위한 날이 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걸출한 교사의 3가지 특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1) 잘 듣는다, 2) 잘 관찰한다, 3) 잘 이해한다. 우리 교사들 중에 많은 분이 준비해온 것을 전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단순함과 거리가 멍니다. 그와 달리 구주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학생들은 공과 중에 영을



야마시타 장로

통해 느꼈던 것과 그에 관해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서로 가르치고 나눕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학생들의 행동을 격려할 수 있다면, 공과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그 주도 즐거움이 되고, 안식일도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대되는 일이 아닙니까?”

앞에서 인용한 말씀에서¹ 벨슨 장로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들기 위해 3가지를 제안했다. 1)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2)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한다, 3) 다른 사람, 특히 아픈 사람들 또는 외롭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봉사한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모든 사람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경전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교회에서 배운 것을 나누고, 간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만든 훌륭한 동영상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일요일에 가정의 밤을 갖는 회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선지자와 사도들은 이해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일요일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임을 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하지 않는 것도 안식일을 단순화하고 드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고,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정으로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단순한 안식일”의 모습을 말하며, 야마시타 장로는 계속해서 그 밑바닥에 있는 깊은 원리를 이야기했다.

“우리 지역 회장단 역시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의



목록을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생각해보면, 그런 목록은 자연히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회장단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안식일을 아주 잘 단순화하고 드높이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선지자를 따르고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몬슨 회장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부름이 많은 사람과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역 회장단은 사람들이 단순화의 참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문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부름의 수 또는 모임의 수를 줄이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기가 어렵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화하는 방법에 관해] 우리 자신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와드의 일이라면, 감독이나 와드 평의회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이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

첫째, 선지자께서 이제까지 단순화에

첫째, 선지자께서 이제까지 단순화에 관해 한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순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와 가정에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말 중요한 것과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기도를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해 한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연차 대회에서 이 주제에 관해 말씀했습니다.² 지난 10년간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페리 장로님을 비롯해 여러 지도자께서 이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런 다음 교회와 가정에서 시간을 내서 안식일을 단순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제외해야 합니까?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는 ‘이 일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셋째, 정말 중요한 것과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기도를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찾은 것에 관해 응답을 구하면, 분명히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단순화가 무슨 뜻이지?’라고만 묻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께서도 우리 스스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단순화하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께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신권 소유자들에게 당부하신 적이 있었다. 모임 후에 신권 소유자들이 부부 동반으로 함께 모였지만,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거나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야마시타 장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곁에 있던 아내를 포옹했다. 쿡 장로도 쿡 자매에게 똑같이 했다. 야마시타 장로는 주변에 있던 한 신권 형제에게



“형제님, 쿡 장로님께서 모임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라며 질문했고, 그 형제는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정한 단순화는 단순하게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지나치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잃을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선지자의 말씀을 잘 살펴보라고 모든 분께 당부드립니다.”

야마시타 장로는 엘마서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선교 활동을 할 때, 앰몬아이하 백성은 엘마를 배척했고, 엘마는 너무 상심한 나머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앰몬아이하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했다.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주의 천사로부터 그의 전갈을 받은 후 앰몬아이하 땅으로 속히 돌아가서, 다른 길로, 곧 앰몬아이하 성 남쪽에 있는 길로 성에 들어가니라.”³ “이 구절에는 엘마가 ‘속히 돌아가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다와 같은 근거 없는 생각을 할 때,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엘마는 다시 금식하며 영적으로 준비하다가 천사의 격려를 받고 앰올레크를 만났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 노력할 때, 이런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르게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즉시 행하고, 신속하게 준비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영은 단순화합니다

“아담과 이브 시대, 심지어 그 이전부터 [교회에서] 우리는 협의를 통해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협의하신 후에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훌륭한 패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협의할 때, 영이 내려옵니다. 이 때문에 협의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왜 동반자와 함께 계획합니까? 영이 임하고, 또 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아내, 남편을 배려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 우리가 이타적이 되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논의할 때, 영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훌륭한 원리입니다.”

복잡하게 돌려 말하는 법률가들의 표현과 비교해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영이 따른다. “이렇게 하면 강한 유대와 조화, 즉 가족과 와드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감독단이 온 힘을 다해 협의한 후, 와드 평의회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시간 기도한 후에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감독단이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제 논의할 때 집중하고 정면회와 보조 조직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족 안에서 이런 패턴을 활용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교사 평의회를 시작한 이유도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향상될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교사도 넓은 의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베드나 장로님께서 가르쳤듯이, 우리가 듣고, 신중하게 관찰하고, 학생과 자녀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영을 불러오는 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단순화하고 드높이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 태도를 주님께 돌린다면, 더욱 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기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 방법과 표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교회에 가기까지 5시간 걸린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가겠습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미크로네시아도 비슷해서 교회에 가려면 한 시간은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회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와 재정, 문화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가족에게 다른 가족과 안식일에 똑같이 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각 가족이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함께 고려하고 논의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을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에게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화의 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형태와 겉모습이나 우리가 쓰는 방법과 표현만 바꾸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 태도를 주님께 돌린다면, 더욱 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속죄의 위대한 권능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정화되고, 치유되고, 용서 받고, 힘을 느끼고,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1. 러셀 엠 넬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29쪽.
2. 디이터 에프 후흐트도르프, “복음은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20쪽.
3. 엘마서 8:18.

안식일의 기쁨을 되찾다—동두천 그룹과 철원 지역 성도들

“우 리 가족만이 회원이라는 생각에 외로웠습니다. 작은 규모이지만 매주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안식일 모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강동희 형제가 간증했다.

지난 2016년 12월 4일, 간증하는 목소리들이 철원군의 어떤 가정집을 고요히 채웠다. 철원 지역의 예배 모임이 시작된 것이다. 군 복무 중인 강동희 형제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남한의 최전방에 위치한 강원도 철원군은 소속 와드인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다. 이 지역 성도들이 교회에 참석하려면 자가용으로도 1시간 반을 꼬박 운전해야 하며, 더욱이 군 복무 중인 회원들은 철원 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 그동안 성찬식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의정부 와드 대제사 그룹 지도자인 최창륜 형제, 배운호 형제 및 감독단은 회원 기록에 있는 400여 명의 저활동 회원들을 꾸준히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파악했다. 또한 철원 지역뿐 아니라 동두천 지역에도 고령이나 건강, 가정 사정 등으로 먼 이동 거리가 부담되어 교회 참석을 못하거나 가끔만 참석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스테이크 회장단에게 전달되자, 의정부 와드 감독단과 스테이크 회장단의 승인과 지원으로 철원 지역과 동두천 지역의 회원들이 매주 일요일 예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철원 지역의 회원들은 철원에 사는 의정부 와드 회원 고종협 형제의 가정에서, 동두천 지역은

그룹이 형성되어 동두천의 미군 지부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고종협 형제와 그의 아내 김혜정 자매는 매주 철원 지역의 예배 모임을 위해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군인 출신인 고 형제는 군 장병들이 안식일에 겪는 애로 사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철원에 온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군 생활 33년을 해 오며, 안식일에 성찬을 들 수 없는 후기 성도 군 장병들을 생각할 때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철원 지역의 군 장병들에게 신앙을 강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최전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기회와 혜택에 감사합니다.”라고 간증했다.

동두천 그룹의 송성희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개종하고 처음 다녔던 동두천 지부가 없어진 뒤 가족 사정, 개인적인 나태함 등으로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교회 친구의 꾸준한 연락으로 교회에 잘 나오기로 결심했고 마침 동두천 그룹이 생겨서 더 편안히 성찬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우리 아이와 비회원인 제 남편에게 모범을 보이려는 제 노력을 통해 우리 가족이 복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동희 형제의 아내로서 철원 지역에 사는 유미현 자매는 “자녀를 교회 안에서 키우고자 하는 소망을 청년 때부터 키워왔는데, 정작 결혼을 하고 이 지역에 살다 보니 가정을 제외하고는 자녀들이 어린이집의 영향만 받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아이들과 예배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쁩니다.”라고 전했다. ■



왼쪽 사진: 철원 지역 회원들의 예배 모임, 오른쪽 사진: 동두천 그룹과 미군 지부 회원들

단풍잎 가족

— 에피소드 3 —

“안식일의 예배 경험을
단순화하고
드높인다” 편

지역 소식



어떻게 안식일을 단순화하고 드높일 수 있습니까?

소셜 미디어 선교 훈련 모임: “야! 나도 선교 사업 할래!”

“[젊은이]들의 [엄지손가락]을 풀어 주시매 그들로 말할 수 있게 하셨더라.”

(5월 27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대전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린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한 말씀을 인용함, 제3니파이 26:14 참조)

지난 5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방한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것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소셜 미디어(SNS)를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라는 의미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 말씀은 한국 성도들에게 유쾌한 권고로 각인되었으며 이에 순종하기 위해 성도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청주 스테이크에서는 이 권고를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모임이 개최되었다. 옥스 장로가 언급한 15~25세 연령대의 회원들과 부모 및 지도자, 그리고 청주 스테이크 선교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지역 칠십인 배동철 장로의 감리하에 서울 남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 회원이자 관리 본부 직원인 연수정 자매가 훈련과 실습을 진행했다.

배동철 장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옥스 장로님은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할 때입니다.’ 15세에서 25세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업의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들은 15세에서 25세 회원들의 친구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친구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초점을 맞추십시오. 선교 사업을 SNS를 통해 해 주십시오.”

이어진 연수정 자매의 훈련에서 소셜 미디어 선교 사업의 다섯 가지 실천 매뉴얼이 제시되었다. 그 다섯 가지 절차는 “이야기, 공유하기, 권유하기, 연결하기, 확인하기”이다. 이는 소셜 미디어 선교 사업이 단순히 링크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구도자를 선교사와 연결하고 구도자의 발전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보여 주고 있다.

홍덕 와드 이채은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분명 제 엄지는 소셜 미디어에 익숙하지만 이걸 선교 사업에 접목하려고 했을 때 막연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다섯 가지 절차를 통해 해야 할 바가 명확해졌어요.”

또한 후기 성도로서 우리의 일상을 보여 주는 것이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옥스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다.

“회복된 교회의 ... 교리적 가르침[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청주 스테이크 훈련 모임 중 실습하는 회원들

분야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원합니다.”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의 오주영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소셜 미디어 선교 사업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느껴졌지만,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일상 속 행복을 짧게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히려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만큼이나 부담 없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훈련의 후반부에서는 두 가지 활동을 통해 각 과정들을 실제로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활동은 교회의 콘텐츠를 공유할 때 항상 자신의 소감이나 생각, 그리고 권유를 덧붙여서 공유하는 연습이었다. 짧은 동영상을 시청한 후 떠오르는 코멘트를 오픈채팅방에 나누는 시간이 주어졌다.

천안 와드 오해리 자매는 선교 사업에 대한 동영상을 공유하고 다음의 코멘트를 덧붙인 경험을 나눠 주었다.

“제가 2년이나 학교를 휴학하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7월부터 바로 이런 선교사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길에서 이렇게 검은색 명찰을 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면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

그 외에도 독특한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시 태그들이 올라오며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두 번째 활동은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반응했을 때 취해야 할 후속 단계(권유하기, 선교사에게 연결하기, 확인하기)를 연습하는 것이었다. 이 활동은 소그룹으로 자리를 재배치하고 모두가 상황별 역할극에 참여하는



훈련 모임에서,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모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몇 팀이 상황극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남의 유머러스한 입담은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그런 가운데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홍덕 와드 엄우림 자매는 “온라인 선교 사업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세 단계로 단순화되어 있어 상황극이 어렵지 않았어요. 실전에서도 이 단계들을 사용할 기회를 꼭 만들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상당 와드 정혜림 자매는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실습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옥스장로님의 권고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윤곽이 잡힌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이처럼 선교 사업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교 사업의 작은 결실들이 일어나고 있다.

연수정 자매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눈다.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알게

된 여러 아기 어머니들이 있고 저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왔었는데, 한 아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함께 교회에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곧 교회에 참석해서 토론도 했습니다. 지금은 토론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선교 사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전국 다른 스테이크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7월 2일 일요일에는 광주에서, 9일에는 청년 대회 조장 훈련 모임에서, 16일에는 대전에서, 23일에는 전주에서 같은 모임이 진행되었다.

한국 성도들이 자신의 엄지를 사용하여 주님의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

세미나리 이수를 도운 또 다른 손길

2017년 한 해 동안 연재되는 "사랑의 편지" 시리즈는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글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담고 있다. 이번 9월호는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의 이승영 형제가 같은 와드의 성명자 자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이승영 형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의 어머니 강명옥 자매가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했고, 반원 중 두 자녀의 어머니인 성명자 자매는 자신의 집을 세미나리 장소로 제공하고 매일 아침 식사를 마련했다.

성명자 자매님께.

이렇게 편지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축스럽지만 이런 기회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자매님 덕에서 세미나리를 할 때, 저희 어머니의 수업이 끝나면 자매님께서 아침밥을 정성스럽게 차려 주셨지요. 저와 상윤이 형, 상준이, 보석이, 시현이, 정은이 이렇게 여섯 명의 반원들은 든든하게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철없는 저희에겐 매일 먹는 아침밥이 그저 일상에 불과했었죠.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봉사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아 제가 군 입대할 때, 휴가 나왔을 때, 심지어 최근까지도 여전히 따뜻한 밥상으로 전해주고 계시네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부모님께 요리를 해 드릴 때, 요리에는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세미나리 열 번보다 밥을 한 번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시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3년의 세월 동안 거르지 않고 새벽을 분주히 움직이셨던 그 사랑은 저에게 순수한 봉사와 사랑의 모범으로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세미나리 매일반을 통해 복음에 대한 지식과 간증, 그리고 사랑과 봉사의 모범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또한 자매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제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른 아침 자매님의 덕에서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본 그 풍경이 계속되고 있겠지요. 저희 어머니는 반원들을 가르치시고, 자매님은 분주히 움직이시며 정성스레 아침을 차리는 모습 말이에요. 그 모습을 회상하며 성인이 된 지금에야 가슴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승영 올림.



승영이에게.

돌이켜 생각해보니 참 대견한 시간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미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첫 자녀인 시현이가 세미나리 매일반에 참석할 수 있길 소망했었지. 바쁜 아침 시간에 효과적으로 세미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너희 어머니 강명옥 자매와 의논을 했었던다. 너희 어머니는 교사를 하고, 나는 아침밥을 챙겨주기로 결론을 내렸어. 환상적인 콤비라고 할 수 있었지. 사실 혼자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참 힘들었을 텐데 부담을 반씩 나누어 가진 것이지.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었다.

너희 어머니는 교사, 나는 아침 식사 준비, 또 나처럼 자녀들이 세미나리를 듣는 정민수 형제님은 반찬 재료들을 지원해 주셨단다. 세 사람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 집에서 3년동안 세미나리를 잘할 수 있었어. 혼자 다 하려고 했으면 쉽게 지쳐서 중도에 그만했을 수도 있었을 거야. 나 역시도 두 분께 이 기회를 통해 감사를 전하고 싶구나.

세미나리 덕분에 시현이가 선교 사업을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청소년기에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견뎠다고 생각한다. 네게도 세미나리가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해.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때 그렇게 했었지'라고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감사의 글을 받으니 멧쩍기도 하고 기쁘구나.

지금은 멋진 청년으로 자란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흐뭇하단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신권 형제로서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볼게! 고맙고 사랑해.

성명자 자매가. ■

“개인과 가정에도 신앙의 집이 건설되길”

지난 7월 9일 일요일 오후 6시,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교회 부지에서 새로운 교회 건물의 기공식이 열렸다. 새로운 건물의 기공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동 스테이크와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회원들이 기공식에 참석했다. 2017년 7월 현재 번동의 소속 와드는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다.

2018년 말 완공될 예정인 이 교회 건물은 완공 후 서울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내 일부 지역 회원들이 사용하게 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센터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후로 약 3~4일간 전국에 비가 내렸으나, 기공식이 있던 9일 6시부터는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잠시 비가 멈추었다. 적당한 날씨 속에, 기공식을 축하하는 서울 동 스테이크 회원들의 중창, 서울 동 스테이크 회장인 송병철 형제의 말씀, 테이프 커팅식, 시삽식 순서 모두 야외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공식이 끝난

뒤 다시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동 스테이크 회장인 송병철 형제는 건물의 기공을 축하하며,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전했다.

“솔트레이크 성전에 가면 그 건물을 지은 성도들의 애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손잡이, 조그마한 장식까지도 성도들이 직접 조각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직접 건물을 짓지는 않지만 잘 엄선된 업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에서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간구가 들리길 바랍니다.”

또한 송 회장은 성도들에게, 건물이 안전하고 아름답게 들어설 수 있도록 간구하는 동안,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라는 집도 신앙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테이프 커팅식에는 서울 동 스테이크와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회장단 및 교회 지도자, 건축 및 건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또한 시삽식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여러 회원들이 참여했다.

새로운 건물의 순조로운 완공과 이 지역의 교회가 발전되길 염원하며, 성도들은 그 소망의 첫 삽을 떴다.

이 지역 토박이 회원인 한석용 형제는, “1980년대 제가 청소년으로서 교회에 막 개종했을 때, 장위 지부 회원이 30여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여러 지역의 회원들이 이 교회에 모이고 우리가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모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래들과 함께 모여 청소년 상호 향상 모임, 세미나리 등 신앙 생활을 활발히 하는 모습이 매우 기대됩니다.”라고 전했다. ■



오른쪽 위 사진: 새로운 건물의 조감도. 오른쪽 사진: 시삽식. 왼쪽 사진: 리본 커팅식

군 생활 동안 매주 교회에 참석하겠다는 목표

대장님의 방문을 두드리려는 찰나, 나를 보는 그분의 시선이 걱정되어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호현 형제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입대 전, 나는 군 생활 동안 교회에 매주 참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대에서 우리 교회를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부대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 참석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부대 밖으로 나가야 한다.

훈련소에서의 6주 후, 나는 포천시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가벼운 이등병 약장에 짧은 머리였지만 앞으로의 군 생활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무거웠다. 훈련소에서 이어온 습관들을 지키기 위해, 불건전한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사용을 피하고 동료들의 욕이나 음담패설로부터 멀리 있으려 노력했다.

몇 주 후, 목표한 대로 나는 부대장님을 찾아갔다. 대장님의 방문을 두드리려는 찰나, 심장이 두근거리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일개 이등병이 대장님을 찾아가도 되는 건지, 군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지, 나를 건방지게 보시지는 않을까 고민이 됐다. 선교 사업을 했지만 귀환 후 처음으로 낯선 사람 앞에 나의 믿음을 알리게 됐고, 나를 보는 그분의 시선이 어떻게 걱정됐다. 속으로 짧게 기도를 드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대장님께, 매주 일요일 근처 의정부 와드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나의 걱정과는 달리 대장님은 침착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지만, 아쉽게도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말씀하셨다.

목표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다. 가족들은 이런 나를 계속해서 응원해주었다. 우리 작은 형이 군 시절 겪었던 경험이 내게 큰 모범이 되었다. 형도 허락을 받지 못해 교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안식일을 충실히 지켰다. 특히, 형은 부대 안에서 회원 한 명을 찾게 되었고 같이 매주 성찬식을 하고 함께 경전도 읽고 말씀도 했다. 나는 형처럼 부대 내에서 회원을 찾으려 노력하면서, 혼자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노력했다. 훈련소에 도착한 직후 받았던 의정부 와드 감독님의 허락에 따라, 계속해서 빵 대신 건빵으로, 또 물로 부대 안에서 홀로 성찬을 취했다.

기회일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아쉬움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또 다시 찾아왔다. 부대장님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새로운 대장님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나는 또 한 번 용기를 냈다. 방문을 다시 두드리고 새로운 대장님을 뵈었다. 나의 믿음을 소개하며 일반 개신교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우리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분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혹시 교회의 다른 이름이 있지는 않냐고 물어보셨다. ‘물론교’라고도 불린다고 말씀드리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분은 살짝 웃으시더니 자신이 한 때 우리 교회 회원이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많이 놀랐다. 그분은 자신이

침례받은 것을 기억했다. 자신의 형과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서 계속 교회를 다닌다며, 내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고 하셨다. 그 말에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불과 며칠 안에 대장님은 매주 의정부 와드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많은 의정부 회원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와드에 적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게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뿐 아니라 대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오시도록 길을 닦는 과제가 주어졌다. 어쩌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종종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 무엇을 믿는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교회와 믿음에 대해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내가 교회에 가도 되는지 새로운 대장님께 한 번 더 여쭙보지 않았다면 이런 축복과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시험하셨고 간절히 바라던 축복을 내게 주셨다. 설령 내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됐을지라도, 주님은 용기를 낸 행동에 대해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축복하셨을 것을 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매 순간 우리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신다. 우리 앞에 놓인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택하고 신앙을 행사한다면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좇아’ 영감에 따르다

침례 낱자를 정한 구도자가 없었지만, 우리는 영감에 따라 선교사 지도자와 침례 접견 낱자를 잡았다.

조희수 자매 선교사

부산 선교부



동 반자와 나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터덜터덜 교회로 걸어와 문을 잠그고 소리 내 울었다.

지난 5월 초, 우리가 만나던 사랑하는 구도자는 6월에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구도자의 부모님의 반대로 우리는 그 구도자를 더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정말 슬펐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행사했지만 구도자들 중 아무도 침례를 결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금식을 시작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준비시켜 달라고 간구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영감으로 우리가 아는 어떤 부부가 준비되었음을 느꼈다. 이 구도자 부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세 번이나 침례 권유를 거절했고 몇 주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었다. 최근 다시 교회를 찾아왔지만

곧 토론도 갑자기 취소하셨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영감을 통해 알았기에 침례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나갔다.

선교부 사무실에서 빌렸던 침례복이 있었지만 그 부부가 침례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들의 침례 접견 약속을 잡기 위해 선교사 지도자에게 전화했다.

우리의 상황을 듣고 당황해하는 선교사 지도자에게 우리의 간증을 진지하게 나누자, 그는 침례받겠다고 하지 않은 이 구도자들을 위해 접견 낱자를 잡았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들을 신앙으로 추진해 나갔다.

그리고 이를 후, 갑자기 구도자 부부 중 남편분이 이렇게 말했다. “2주 후에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분의 아내가 남편과 함께 침례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미리 잡아놓은 그 낱자에 침례 접견을 받았고, 7월 2일, 선교부 사무실에 돌려주지 않았던 그 침례복을 입고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곧 부모님의 반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랑하는 구도자와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나는 얼마가 옥에 갇혔을 때 고난 중에 드린 기도를 기억한다. “주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좇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 사업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좇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간증한다.

주님의 대표자로서의 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때 이동 개종을 거듭하며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많은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 동반자가 살아계신 선지자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함을 알고 있다.

나는 내 위에 누가 계신지 알고 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이시며 이 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나 자신을 더욱 헌납하도록 만든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나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니파이후서 16:8)

나에게 이 선교 사업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것이다. 누구의 이름이 내 가슴 위 명찰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나의 보잘것없음을 알면서도 그의 이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총명한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 왜 짧은 시간을 바쳐 봉사하냐고 묻는 누군가의 질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7명



권유빈 자매
대구 스테이크
구미 와드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 선교부



박소연 자매
경기 스테이크
분당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박종범 장로
부산 스테이크
구포 지부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이승은 자매
울산 지방부
호계 지부
서울 남 선교부



조재목 장로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최정현 장로
청주 스테이크
충주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황희은 자매
서울서 스테이크
청라 와드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 선교부

새로 부름 받은 봉사 선교사: 11명 (3명/부부 4쌍)



박영화 자매
경기 스테이크
신갈 와드
가족역사부



류경화 자매
경기 스테이크
수지 와드
가족역사부



김인하 장로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정보통신과,
출판미디어서비스



김용진 장로, 양복희 자매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가족역사부



최낙현 장로, 김영주 자매
광주 스테이크
목포 와드
시설부



최정주 장로, 김영주 자매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시설부



황선태 장로, 염신희 자매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가족역사부

지역 소식의 모든 기사와 사진들은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홈페이지: www.lds.or.kr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dschurchkorea/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감독: 안재득 형제(전임: 조남준 형제)

서울 남 스테이크

송파 와드 감독: 김인회 형제(전임: 황창주 형제)